

기획

설립자 조영식 박사 ‘학장취임식’, 61년 만에 베일 벗다

1954년 조영식 박사 학장취임식 녹음본 발굴

방누리 기자 nurib423@khu.ac.kr

“끝으로 하나 더 이야기하자는 것은, 저로서는 너무도 크나큰 욕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국에 있어서의 유일한 대학, 한국에 있어서의 어떠한 특정 대학을 흉내를 내서 그와 같은 대학을 만들고 싶다는 심정은 없습니다. 우리가 상대해야 할 것은 한국의 어느 대학보다도 동양적이고, 세계적으로 내놔서 첫째가는 제일 대학과 경쟁해야 되겠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처럼 빈한하고 국가경제를 위시해서 모든 점에 약한 이러한 환경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저 사람들에 비해서 백배, 천배의 노력과 정성을 바치지 않아가지고는 아니 될 듯 생각합니다.”

지난 1954년 5월 20일에 있었던 설립자 고(故) 조영식 박사의 학장 취임식 연설 내용이다. 당시의 ‘학장 취임식’은 지금의 ‘총장 취임식’에 해당한다. 당시 우리학교는 종합대학(3개 이상의 단과대학과 대학원으로 구성되는 학교)이 아니었기 때문에 총장이라는 직함 대신 학장이라는 직함을 쓰고 있었기 때문이다.

6.25전쟁의 포화가 멎고 고작 1년도 지나지 않았던 시점이었기에 서울캠퍼스 일대는 허허벌판이었다. 우리학교에 있던 건물이라고는 1957년까지 임시로 썼던 문과대학 교사가 전부였기 때문에, 학장 취임식 역시 이 건물에서 진행됐다.

설립자가 학장으로 취임하는 중요한 행사였지만, 지금까지 이 행사에 대한 기록은 ‘사진자료’만 남아있었다. 연설 내용에 대한 자료나 행사순서가 기록된 자료는 남아있지 않았다. 그러던 중 올해 1월, 경희기록관에서 취임식 녹음본 ‘오디오 릴 테이프’를 발견하게 되면서 당시 행사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취임식이 담긴 릴 테이프는 우연히 발견됐다. 지난 2010년에 경희기록관이 출범하고 2013년 확장하면서, 경희기록관은 기존에 존재하던 ‘중앙박물관 산하 경희역사자료실’의 모든 자료를 인수하게 됐다. 이후 이 자료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던 과정에서, 이 귀중한 릴 테이프가 발견된 것이다.

경희기록관의 남기원 계장은 “그동안에는 박스가 새것이었었고, 테이프 곁에 아무런 제목도 적혀있지 않아 빈 테이프로 여겨 방치돼왔던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역시 처음엔 빈 테이프라고 여기고 박스를 정리하는데, 박스 안에서 ‘1954년 학장취임식’



“위대한 대학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동양적으로 세계적으로까지라도 우리는 미래를 전망하면서 모교의 건설을 위해서 훨씬 단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라는 메모를 발견했다. 그래서 이 릴 테이프가 혹시 음성이 녹음된 테이프일 수 있겠다 싶어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후 경희기록관은 외부업체에 아날로그 자료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디지털화 작업을 의뢰했고, 그 결과물을 토대로 지난 3월부터 4월 초까지 청취한 결과 이것이 1954년의 ‘학장취임식’ 자료인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4월 23일부터 5월 1일까지는 녹음 연설문의 내용을 텍스트로 옮기는 녹취 작업이 진행됐다. 결과적으로 이번 발굴과정을 통해 교내에서 가장 오래된 오디오 기록물이자, 설립자의 가장 오래된 연설기록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오디오 테이프에는 당시 학장취임식의 행사전체 내용이 녹음돼있다. 때문에 사회자의 행사 안내에 이어, 취임자 약력 소개, 취임자 입장 및 경례, 조영식 설립자의 학장



취임사, 학장에 대한 경례 순으로 행사가 진행됐음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조영식 박사는 당시 연설을 통해 학장 취임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대학발전을 위한 협동과 단결을 요청했다. “대학의 발전과 대학을 근거로 해서 항상 우리의 좋은 기량을, 의견을 종합해서 우리가 뜻하는 목표를 향해서 일념 매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와 같은 대목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 취임사에서 무엇보다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조 박사가 1954년, 전쟁으로 인한 상처가 채 가시지 않은 시점부터 ‘세계적인 대학’이라는 웅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는 “(국내에서) 위대한 대학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동양에서, 세계에서 (위대한 대학으로) 우리의 미래를 전망하며 훨씬 단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등의 말을 통해 우리학교가 단순히 한국 혹은 아시아 내에서 경쟁하는 대학이 아닌, 세계

①우리학교의 설립자 고(故) 조영식 박사의 학장 취임식이 ②문과대학 교사에서 1954년 5월 20일에 열렸다. ③이번에 발굴된 릴-테이프는 교내에서 가장 오래된 음성자료로 당시 학장 취임식의 행사 전체 내용이 녹음돼있다

사진 : 경희기록관 제공

적인 대학으로 성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희기록관 남 계장은 “매우 인상적인 대목이다”고 입장을 밝히며 “세계적인 대학을 건설하겠다고 하는 것은 보통 한 60년대나 나오는 비전이라고 여겨져 왔는데, 그 이전, 그것도 전쟁 직후의 허허벌판 속에서 가건물 한 채 놓인 캠퍼스를 바라보며 이런 비전을 확신에 찬 목소리로 실제 연설에서 밝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말했다.

경희기록관 측은 이번 오디오 릴-테이프를 계기로 학내 소장자료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발굴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남 계장은 “이번 사례를 통해 아직도 소장자료 중 상당수가 내용조차 파악되지 않은 채로 방치됐을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앞으로 이런 자료들을 본격적으로 더 발굴하고 내용을 파악하는 작업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나가겠다고 이야기했다.

저희 V.O.U는 Voice Of University, 대학의 소리 방송국이란 이름으로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를 기본 바탕으로 건전한 학풍조성운동에 앞장서서 경희가족 여러분에게 뉴스의 보도, 오락 및 교양프로그램의 방송을 하며 학내 정보 전달과 정서함양에 힘써 왔습니다.

저희 V.O.U는 항상 경희 구성원들과 대학의 지성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겠습니다.

V.O.U 여기는 정성을 다하는
여러분의 대학소리 방송입니다.

